



푸른 하늘과 맞닿은 하얀 꼭지점의 지붕들이 눈길을 끄는 알베로벨로의 여유로운 한낮 풍경. 한 번에 너무 많이 보려고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걸거나 자전거를 빌려 거닐다 보면 지중해의 풍광이 시나브로 마음 속으로 스며들어 온다.

사진제공 | 디스커버리 투어

시간은 멈추고 삶의 여운만 흐른다

지중해의 화사한 햇살, 고대부터 근·현대사까지 풍부한 문화, 역사 유적, 그리고 영화 ‘대부’의 아련한 향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탈리아 여행 단골 코스는 로마나 피렌체를 기점으로 베네치아, 밀라노 등 대부분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에 쏠려 있다. 하지만 중북부에 비해 유명세는 조금 덜하지만 남부 이탈리아 역시 여행자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매력의 고장이다. 유럽 문명의 원형인 고대 그리스와 페니키아의

전설이 있고, 아라비아 문명과 바로크의 문명을 만날 수 있는 해양도시도 있다. 제주도의 14배에 달하는 시칠리아 섬에는 아랍문화와 고대 그리스 문화가 꽃을 피운 휴양지 타오르미나와 철학자 아르키메데스의 고향인 트라파니가 있다.

이번에 스포츠동아가 디스커버리투어와 함께 준비한 이탈리아 여행이 바로 이곳,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섬을 돌아보는 8박9일의 여정이다.

